

박세리의 귀환...제2 전성기 오나

9년4개월 만에 KLPGA 우승

KDB대우증권 클래식 16언더파 정상
4R 9개 버디 몰아쳐...퍼트감각 최상
컨디션 좋아 美LPGA 우승 노려볼만

허윤경 준우승...3개 대회 연속 2위

‘원조 골프여왕’ 박세리(35·KDB금융그룹)가 9년4개월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우승했다.

박세리는 23일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 골프장(파72·6416야드)에서 열린 KDB대우증권 클래식(총상금 6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2개에 버디는 9개를 적어내며 7언더파 65타를 몰아쳤다. 합계 16언더파 200타의 코스레코드(종전 12언더파)를 기록한 박세리는 2위 허윤경(21·현대스위스)을 3타 차로 따돌렸다. 2003년 5월 엑스캔버스 여자오픈 우승 이후 KLPGA 투어 8승(아마추어 프로 대회 우승 별도)을 신고했다.

그는 모든 걸 이룬 선수다. 미 LPGA 투어에서 통산 25승을 기록했고 2007년 한국선수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입회했다. 한국에서도 통산 14승(아마 6승, 프로 8승)을 거뒀다. 각종 기록도 박세리이기 가능했다. KLPGA 투어 최초로 3주 연속 우승(1996년)에 성공했다. 한화컵 서울여자오픈에서는 3년 연속 우승하기도 했다. 1998년 미 LPGA 투어로 진출했다. 기록 행진은 계속됐다. 1998년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2010년 5월 벨마이크로 클래식 우승까지 25승을 기록했다.

이날 박세리는 1타차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했다. 불안한 선두였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티샷은 일관되게 260야드 안팎을 유



23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골프장에서 열린 KLPGA투어 KDB대우증권클래식에서 9년 만에 국내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박세리가 우승컵에 키스하고 있다.

지했다. 아이언 샷은 거의 모두 핀 5m 이내에 붙였다. 퍼트 감각도 최상이었다. 전반에 4개, 후반에 5개의 버디를 잡았다.

마지막 18번홀에 올라섰을 때는 이미 승부가 결정됐다. 박세리는 경기를 즐기며 갤러리들에게 화답했다. 갤러리들은 골프여왕의 우승을 반갑게 맞이했다.

9년 만에 우승한 박세리는 “지금 컨디션이라면 미국에 가서도 해볼만하다. 후반기 남은 대회가 몇 개 있다. 오늘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하면 201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윤경(21·현대스위스)은 이날 6타를 줄이면서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단독

2위에 자리했다. 3개 대회 연속 준우승이라는 이색 기록을 남겼다. 최나연(25·SK텔레콤)은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3위에 올랐고, 양수진(21·넵스), 홍란(26·메리츠금융), 이정은(24·호반건설)이 합계 9언더파 207타를 쳐 공동 4위로 경기를 끝냈다.

평창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우승 비결은 즐기는 골프...이제 유망주 육성하고 싶다”

■ 박세리 우승 소감

“한국에서 우승한 것이 더 기쁘다. 팬들이 즐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냈다.”

박세리(35·KDB금융그룹)가 KDB대우증권 클래식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 감격한 듯 울먹이며 우승 소감을 밝

혔다. 박세리는 “9년만의 우승인 것도 어제 알았다. 실력 있는 후배들이 많아 한국에서 우승하기가 더 힘들다. 볼 때마다 참 잘 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세리의 우승 비결은 ‘즐기는 골프’였다.

박세리는 “작년부터 골프가 다시 즐

거워졌다. 특히 지난 겨울 아버지와 참 재미있게 동계훈련을 했다. 나의 첫 스승이자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다. 그림, 스탠스, 어깨 넓이 등 기본기를 잘 바로 잡아 주신다. 지금의 감각이면 LPGA투어에서도 해볼만 하다. 남은 미국 대회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올림픽 정식종목이 된 골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후배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내가 출전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후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감독, 코치도 좋다”고 했다. 아울러 “선수로서의 꿈은 다 이뤘다. 나로 인해 골프에 대한 생각과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을 후배들에게 베풀 차례다. 유망주를 육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평창 | 주영로 기자

장타왕 김대현, ‘매치의 제왕’ 등극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서 홍순상 꺾고 우승



‘장타왕’ 김대현(24·하이트·사진)이 한국프로골프투어(KGT) 매치의 제왕으로 등극했다.

김대현은 23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트룬골프장(파72·7155야드)에서 열린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6억원) 결승에서 홍순상(31·SK텔레콤)을 2&1(1홀 남기고 2홀차 승리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2010년 5월 GS칼텍스매경오픈 이후 2년 4개월 만의 우승. 매치플레이에서 12게임 연속 승리를 기록 중이던 홍순상은 김대현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2년 연속 우승이 좌절됐다.

김대현은 경기를 주도했다. 그러나 쉽게 승부를 내지 못했다. 16번홀까지 2홀 차로 앞섰다. 17번홀(파4)을 비기기만 해도 우승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 그러나 쉽지 않았다.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공이 깊은 러프로 들어갔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두 번째 샷은 다시 그린 우측 명커에 빠졌다. 세 번째 샷도 불안했다. 홀 2m 남짓한 거리에 멈췄다. 반면 홍순상은 세 번째 샷을 홀에 바짝 붙여 파로 끝냈다. 앞선 16번홀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놓쳤던 김대현이다. 불안했지만 퍼터를 떠난 공은 홀 안으로 사라졌다. 파로 비기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김대현은 2010년 상금왕으로 등극했다. 오래갈 것으로 기대됐지만 그렇지 않았다. 한 시즌 만에 부진의 늪에 빠졌다. 2011년 상금랭킹 9위로 폭 떨어졌고 PGA Q스쿨도 탈락했다.

김대현은 “노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 몇 달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훈련했다. 노력한 결과가 오늘 나온 것 같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 우승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평창 | 주영로 기자

두산, 핸드볼 코리아리그 우승...4연패 달성

두산이 201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남자부에서 우승해 4연패에 성공했다. 두산은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챔피언결정 2차전에서 충남체육회에 22-28로 패해 1승1패를 이뤘지만, 1차전 합계(26-19) 골득실에서 1골 앞서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보즈니아키, WTA투어 KDB코리아오픈 우승

캐럴라인 보즈니아키(11위·덴마크)가 23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KDB코리아오픈(총상금 50만달러) 최종일 단식 결승에서 카이아 카네피(16위·에스토니아)를 2-0(6-1 6-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에르고다음 다이렉트손해보험(주)

자동차보험로
아끼려면
어떡하지?

에르고에
전화해!

역시!
ERGO

1544-1666 | ERGO 다음

8.10월 자동차보험 만기인 고객에게만
아파트로 보험료만
알려주세요

트렁크
정리함이
무료

기간: 2012년 10월 31일까지
(대상 연도: 2009년 / 50만달러 미만)

합동최저한 전화 번호

2012년 대한민국 투자수익률

XX은행 이자 3.50%, 주식 중소형 XXX 신탁 0.77%
저축은행 부실

어디에 **투자** 하시겠습니까??

(주)미인수산업어조합법인 **전북치폐양식조합원**이 되어 주십시오.

2000만원에 전북치폐양식수족관을 분양해 드리고
1년 960만원 (年 48%) 확정 수익 보장합니다..

(주)미인수산업어조합법인 전북치폐양식 사업 창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0만원의 예치금 납입 시 7평 전북 치폐양식 수족관 1개를 분양 해 드리며 계약 기간 동안
준 조합원 자격의 사업권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족관의 치폐 판매 수익금에서
월 80만원의 확정보장 수익을 계약기간 동안 매달 배당해 드립니다.
준 조합원 가입 시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만료 시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계약 종료시 예치금 2000만원을 반환해 드립니다.

전북치폐양식 조합원 수익배당표

	개설비용	투자수익(월)	투자수익 (1년)
1개 수족관 운영	2000만원	80 만원 (확정보장)	960 만원 (확정보장)
2개 수족관 운영	4000만원	160 만원 (확정보장)	1920 만원 (확정보장)
3개 수족관 운영	6000만원	240 만원 (확정보장)	2880 만원 (확정보장)

Q 하나 | 전북 치폐양식업이란 무엇인가요?

전북 양식업은 크게 분류하여 전북 수산 양식업과 치폐양식업이 있습니다.
(주)미인수산업어조합법인에서 하는 사업은 치폐양식업입니다.
치폐양식업이란 전북의 말을 부화시켜 일정 기간 키운 후 **전북 양식 어민에게 공급 하는 사업입니다.**

Q 둘 | 확실히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업인가요?

전북 치폐양식업은 전북 수산 양식업과 달리 금년에 온 태풍, 기후영향, 홍조 같은 자연재해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안전한 사업입니다.
국내 전북시장은 1조5천억~2조 사업 규모이며, 2001년 95톤 100억에서 2011년 8,400톤을 생산, 생산금액만 무려 4300억원에
이르는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신 성장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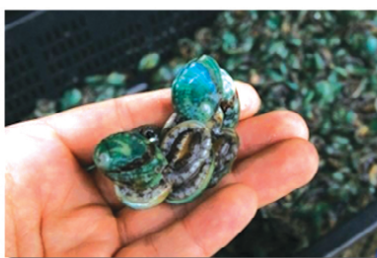
(주)미인수산업어조합법인이 소속된 완도군은 3700여명의 전북양식어민이 연간 7400톤을 생산 35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완도군은 전북 일류화 상품개발을 위해 150억원을 들여 생산관리, 유통, 판매, 수출, 홍보지원, 관리지원
14종29개 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주)미인수산업어조합은 국내 최대 규모의 1200개 수조에서
전북 치폐양식을 하고 있으며 전량 완도군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Q 셋 | 왜 지금 전북 치폐양식업을 해야할까요?

금년 태풍과 기후 이상현상으로 인해 현재 전북 양식장이 크게 타격을 받아 전북 치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수출 판로가 확보 됨으로써 정부 차원의 보다 광범위한 시장 개척에 나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넷 | 전북 치폐양식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년 들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전북 치폐 수요에 발맞춰 준조합원 방식을 통한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치폐양식 사업을 함께 할 조합원 사장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1개 수족관 분양 시 2000만원의 예치금을 받고 있으며, **1개 수족관당 1년 960만원(수익률 48%)** 전북판매 수익을 확정 지급합니다.



문의: 02-3453-0896
(주)미인수산업어조합
http://www.msswando.co.kr